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5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0. 여호와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있습니다. 맑게 씻어주셨던 마음이 어느새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성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슬며시 자리잡은 거짓됨을 씻어주십시오. 가물거리는 진리의 등잔에 기름을 채워주십시오. 채 피지도 못한 채 시들려 하는 사랑의 꽃에 은총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추한 세상의 이면에서 씌 없이 흐르고 있는 은총의 강을 보게 해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감싸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거칠고 어긋난 모든 것들이 하늘의 곡조에 맞춰 아름다운 화음으로 울려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29:11	인도자
♠ 교 독 문	11. 시편 28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박준영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73.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함께
성경봉독	I. 창21:8-21	인도자
	II. 욕38:1-11	조병주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삶은 가능성이다	김기석 목사
	II. 말이 끊어진 자리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50. 자비하신 예수여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상한 갈대 피리라도 하나님
 의 숨결이 닿으면 아름다운 가락을 울려낼 수 있습니다. 주
 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기뻐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이제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
 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
 르는 우리의 사랑 노래가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활동	에베소 강해(10)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염혜영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인도자 조병무 장로	인도자 정현주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중수 박범희 김애경 표명화 박현우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근종 김훈동 김필순 노순옥

용서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에릭과 함께 지내면서 힘겨운 순간도 있었고 일치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힘겨운 순간뿐 아니라 일치의 순간에 나는 라르슈의 중심에,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의 중심에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마음과 감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로서, 상처 입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 주변에 모든 방어체계와 공격체계를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에릭이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관계를 단절한 경우, 자신의 분노와 거부가 용서받았음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이나 정죄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 안 됩니다. 분노와 공격이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격성과 폐쇄성은 화해를 통해 일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듯이 에릭에게도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의 괴로움과 난폭함은 내 속에 있는 고뇌와 난폭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 역시 화해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축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마음을 터놓는 깊은 차원의 해방입니다.

“당신은 공격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있고 특히 두려움이 아주 많군요.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당신의 마음과 좀더 깊은 차원의 인격이 숨어 있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거기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거나 듣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 때, 내 속에 있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인격’과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내 존재의 어느 한 구석에 빛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그 희망에서부터 새로이 시작되거나 다시 살아 납니다.

용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큰 신비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증오의 벽

을 허물고 우리를 화해의 축제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랑이 자라게 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은 우리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성령의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평화와 빛을 자라나게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과하실 때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만들어 내신 결과를 보고 그분을 알아봅니다.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신 평화를 알아봅니다. 내 존재 깊은 곳에서 빛나기 시작한 그 평화를 알아봅니다.

내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열매 맺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은사가 단지 내 존재의 심연을 건드리는 데 머물지 않고 내 온 몸과 영을 감싸고 붙들도록, 내가 온 몸과 혼과 마음과 영을 다 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내 존재의 모든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생명력이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이 빛나도록, 그리고 이 분열과 증오와 착취의 세계에서 내가 언제나 평화와 화해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안으로 천천히, 고요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침묵하시며 그 침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과 같이 뛰며, 나의 호흡이 그분의 호흡 안으로 흡수되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스며들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나의 형제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압박감을 몰아내 달라고 내 전 존재의 외침으로 기도할 때, 내게 희망의 능력을 다시 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 성령님뿐입니다. 그분은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는 연수에 따라, 육신의 나이에 따라, 세월의 시련과 질병과 실패와 환경에 따라 그분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장 바니에,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쉽터

생각도- 밥도- 일도-

빨리 빨리 열심히-

열심(熱心)은 열에 뜬 마음이며

마음의 열이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늘 화를 내니 숨이 거칩니다.

숨이 끊어질 듯 숨이 차서

숨을 이으려 쉽터에 와선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떠듭니다.

더 숨차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삶이 지겹게 힘들습니다.

언제나 한가하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일터가-

거니는 거리가-

조그만 내 집이-

바로 쉽터입니다.

숨차지 않은 사람은 평생, 쉽터가 필요 없습니다.

(박해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조병무 송양진 이한림 김명희 구명자 김준호 곽혜자
고사일 최영선 박애순 배삼순 김지호 김지윤 이선림 임고운 백묘현

월정헌금:

안길상 이형숙 김승현 김수진 김명순 표명화 최윤희 정두리 이용희
박찬정 김 극 김정섭 백혜성 배부례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김중훈 안경숙 안길상 이형숙 유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용진 박효선 장준호 윤정덕 구성실 무명1

생일감사헌금: 이인섭 김 극 정현주 최명동 이형석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정두리	조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영한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곽권희	이건화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원	곽혜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김정숙	박옥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경수	김필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송의섭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이순정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이명희	한선희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이영옥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김희우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안경숙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윤정화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선교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시시오.
2. **새 교우 환영회** :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20분부터 교육관과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새 교우들은 2부예배후에 1층 교육관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장회의**: 여름행사를 위한 교육부장회의가 새 교우 환영회 이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4. **동호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동호회 활동으로 모입니다. 즐겁고 유익한 사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오.
5. **아름다운 원로모임** : 오는 수요일(22일) 오전 10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6. **신앙강좌** : 2005년 제3회 신앙강좌가 다음 주일 오후에 열립니다. 최중수 목사님(미국 펜실베니아 주 스크랜턴 동북펜한인교회 담임)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영성>을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7. **신앙실천** :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은혜 받는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시오. 내적인 변화는 갈망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 헌화 : 김성자 권사 (남편 5주기 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